

青少年의 生活時間 使用變化傾向에 관한 研究

An Analysis on Trend of Time Budgets of Korean Younger Generation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李貞德

Dep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Prof. Chung Duck L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2. 分析內容 |
| II. 理論的 背景 | 3. 生活行動의 分類 |
| 1. 生活時間調査(Time Budget)
의 개념 및 역사 | 4. 分析方法 |
| 2. 社會變動과 Time Budget 간의
相關性 | 5. 青少年의 年齡구분 |
| 3. 한국사회변동과 國民生活時
間使用構造 | IV. 分析結果 및 論議 |
| III. 研究方法 | 1. 前期 青少年(10~15세)
2. 後期 青少年(16~19세) |
| 1. 資料蒐集 | V. 要約 및 結論 |
| | 참고문헌 |

=ABSTRACT=

-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social changes and time budgets of younger generation in Korea.
- 2) I used the statistics which appeared in the "Studies of the Time Budgets of Korean people" carried out by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in 1981 and in 1990.
- 3) The result of this analysis may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 (1) Even in the cases of biologically necessary acts such as sleeping and eating, the average time used by Korean younger generation is remarkably influenced by general social changes.
 - (2) It is in the cases of optional acts such as reading, listening music and enjoying a movie that general social changes influence excessively the time Budgets of children and the youth.
 - (3) It seems that time Budgets of Korean younger generation are losing their balance

and rationally year after year during 1981 and 1990. For instance they spend too much time enjoying TV or popular music.

4) As a conclusion, I shall strongly suggest :

(1) Parents and school teach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in their guidance of their Children or pupil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time Budget.

(2) The programmers of television and radio should consider sincerely the educational influence of their products.

I 문제의 제기

개인의 集合이 확대되어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이 社會라는 점에서 個人과 社會와의 관계는 連續線上의 두 極點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남복, 1990). 즉 개인과 사회라는 개념은 서로 독립된 斷絕의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연속관계라는 것이다. 個人과 사회는 이와 같이 연속적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個人的變化는 社會의變化를 초래하고 반대로 社會의變化는 個人을變化시키는相關性을 지닌다.

모든 人間의 行爲는 시간속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時間이라는 要因은 이와 같은變化에 있어 本源的으로 作用하게 된다. 이 경우, 삶을 구성하는 行爲는 1일 24시간을 週期로 하여 순환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특정행위에 개인이 할당하는 시간량은 다른 行爲와의 연관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특정행위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 他行爲가 특정행위에 미치는 시간량적 규제를 해석의 기본틀로 하지 않고는 事實的 力學關係의 접근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본원적 문제를 간과하여 왔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문제는 成人の 경우보다 24시간이라는 제한적 규제요인이 해석상 중요시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成人과는 달리 아동 및 청소년은 신체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시간사용의 구조를 지향하나 24시간이라는 生活週期의 총체성이 아닌, 즉 단순행위의 시간사용량의 관점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立場이 아닌 성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며,

둘째, 성인에 있어서의 「일(work)」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學業에 해당하는데 학업은 학교에서의 수업과 그 연장인 自習으로 구성되며 이의 시간량은 부모의 가치관과 意志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自由시간은 성인의 意思가 지배되는 特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결과의 一般化 정도를 提高하기 위해서는 生活時間에 대한 時系列的 반복조사를 통해 특정행위의 경향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나, 아동 및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기존연구는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간량분석이라는 平面的 分析에 그치고 있을뿐 時系列的 반복연구를 통한 生活時間속에서의變化傾向에 대한 分析的研究結果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生活時間調查(Time Budgets)의 개념을 도입,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동안 아동 및 청소년들이 행하고 있는 諸行爲의 時間量을 전체平均時間量(특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시간량)·行爲者平均時間量(특정행위를 한 사람들만의 平均시간량)·行爲者率(전체중 특정행위를 한 사람의 백분률)로 多元化하여 变化傾向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生活時間調查(Time Budget)의 개념 및 歷史

Time Budget란 특정시간 즉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동안 個人이 어떠한 행위를 어느 시간대에 얼마동안 하는가를 時系列 日誌(log or diary)式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따라서 Time Budget연

구는 사회구성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立體的 조사연구라 하겠다.

Time Budget란 개념은 17세기 유럽의 미시사회학(microsociology)분야에서 관심을 두었던 가정에서의 家計豫算編成(family financial budget)에 관한 조사연구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한 가정에서 생활을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家計豫算의 사용분석은 19세기에 이르러 Frédéric Le Play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며(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79), 이 과정에서 가계예산편성과 1일 시간사용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상관성을 토대로 시간은 돈과 마찬가지로 소비하고, 절약하며, 투자하고, 낭비되는 資源이라는 생각이 형성되었다.

資源으로서의 時間에 대한 조사연구의 一端은 1845년 발행된 Friedrich Engels의 “英國勞動者階級의 생활실태”(The situa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라는 저서에서 발견되고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Time Budget를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기업의 과학적 경영관리(scientific management)를 위해 노동과 관련하여 「시간과 작업능률과의 相關調查(Time-and-motion study)」를 연구했던 Frederick Tayler이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79).

이후 Time Budget연구는 소련에서 공산혁명 후 보다 합리적인 경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목적 하에서 1924년 Stanislav G. Strumilin에 의해 모스크바 노동자(Moscow worker)들의 1일 24시간에 대한 대규모 생활시간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사회조사로 Time Budget연구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국민의 여가(leisure) 시간에 대한 시간사용조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늘날과 같은 Time Budget개념의 24시간에 대한 생활시간조사는 農務省家庭經濟局(The Bureau of Home Economics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의해 1920년대에 농

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5건의 조사가 그 효시이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79).

세계 제2차대전후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조사로 실시되고 있는데, 日本과 우리나라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과학적인 프로그램편성을 위해 전국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2. 社會變動과 Time Budget간의 相關性

인간의 삶에 대한 양식, 특히 個人的 1日 24시간에 대한 時間使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社會變動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시간량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자유시간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時間은 ① 社會的 要素로서의 時間(Time as a Social Factor), ② 資源으로서의 時間(Time as a Resource), ③ 社會的 意味로서의 時間(Time as a Social Meaning), ④ 因果連結로서의 時間(Time as a Causal Link), ⑤ 狀況으로서의 時間(Time as a Setting), ⑥ 연속으로서의 시간(Time as a Sequence), ⑦ 量的 關係로서의 시간(Time as a Quantitative Relationship), ⑧ 간격측정으로서의 시간(Time as an Interval Level Measurement), ⑨ 序列尺度로서의 시간(Time as an Ordinal Level Measurement), ⑩ 名命尺度로서의 시간(Time as a Nominal Level Measurement), ⑪ 質측정으로서의 시간(Time as a Qualitative Measure)이라는諸側面을 지니고 있다(Klein, 1980).

이중 시간의 社會的 要素와 社會的 意味로서의 측면은;

1) 宇宙的 또는 人間의 生活週期에 기초를 둔 時間측정체계

2) 개인에 의한 시간할당(Time allocation)과 계획

3)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일련의 태도 등을 통하여 사회를 조직화하고 통일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동은 개인의 생활시간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조직화로서의 시간기능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착안, 시간개념을 사회과학의 기초로서 다룬 최초의 학자는 Durkheim이다.

Durkheim은 時間을 先驗的인 것으로 본 Kant와는 달리 社會構造의로 보고 있으며, 각각의 變化에 따라 시간개념이 다른 것은 시간이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변동과 시간간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3. 한국사회의 變動과 國民生活時間 사용 구조

모든 사회체계의 구조·기능 및 형태는 그것들이 처한 역사사회적인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는 歷史社會學的인 視覺에서 볼 때,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동은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近代化」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안병준, 1980), 이러한 포괄적 개념의 近代化에 의한 사회변동은 국민들의 생활시간 사용패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作用해 왔다고 하겠다.

60년대 이후 제3·4공화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近代化는, S. Chodak의 모델에 따르면 그 類型은 「유도화된 近代化」에 속하며(Chodak, 1973), 이로 인한 사회변동은 W.E. Moore에 따르면 「단기적이고 대규모적인 革命」에 속하고 있다(Moore, 1963).

경제발전을 축으로 한 70년대 전후 근대화가 초래한 변동중 국민생활시간 사용변화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부분은 생활의 質과 노동구조를 변화시킨 산업발전과 이로 인한 도시화의 촉진이라 하겠다.

1961年 GNP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비율이 40%, 제조업의 비율이 13%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구조가(변형윤, 1977), 70년대 前後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으로 1982년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1次產業의 비중이 크게 감소(1차산업 18.1%, 2차산업 35.4%, 3차산업 46.5%) 한 반면 2·3차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한국은행, 1983), 이와같은 변화는 이를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 구성에도 재편성을 가져와 1962년에는 1

차산업 63.1%, 2차산업 8.7%, 3차산업 28.7% 이던 것이 1982년에는 1차산업 32.1%, 2차산업 21.3%, 3차산업 46.1%로 취업인구수의 부분별 변화를 초래하였다(한국은행, 1983).

이러한 취업인구 구조변화는 국민생활기간 사용의 패턴도 농수산업형 생활시간 사용패턴에서 2·3차산업형 국민생활시간 사용패턴으로 변모시켰으며, 사회하부구조의 變化가 생활시간 사용패턴에 크게 作用하였다.

한편, 농촌인구의 도시流入과 공업화에 의해 촉진된 이 시기의 도시화는 1960년 28.0%에서 1970년 41.2%, 1980년에는 57.3%로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1966~70년사이의 도시인구는 7.0%라는 유례없는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김의원, 1983).

이와같은 급격한 도시화가 국민생활시간 사용패턴에 미친 영향은, 도시화의 속도에서 비롯된 농촌기질의 사람(rural minded man)과 산업사회적 기질의 사람(industrial minded man)이 하나의 도시생활공간에 混在되어 혼합적 생활시간 사용패턴을 출현시키고, 도시성에서 비롯된 상업성·임금노동성·합리성 등의 가치철도가 生活時間使用패턴에 第1의 尺度로 作用하였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사회하부구조의 변동을 바탕으로 한 60~70년대의 사회변동적부작용은 80년대 중반에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民衆이 사회의 主體라는 정치경제학적 맑시즘의 사상을 배타케 한 素因으로 作用하여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새로운 사회적 의식의 마찰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격변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 成人的 가치체계로 부터 일탈하려는 원심력이 안정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作用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시간 구조에 준거틀로 作用하는 성인들의 생활시간구조는 60~80년대 사회의 격변속에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시간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국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이상 우리나라 成人的 생활시간 사용내용을 보면, 全體平均時間量

表 1. 成人の 24시간 사용내역

(단위 : 시간, 분)

	평 일			토曜일			일요일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수면	7.36	7.53	+ .17	7.32	7.56	+ .24	8.08	8.44	+ .36	
식사	1.40	1.47	+ .07	1.42	1.49	+ .07	1.46	1.52	+ .06	
신변잡일	1.05	1.02	- .03	1.07	1.02	- .05	1.06	1.04	- .02	
일	4.46	5.06	+ .20	4.14	4.20	+ .06	2.45	2.20	- .25	
가사	2.43	2.00	- .43	2.45	1.59	- .46	2.44	1.57	- .47	
이동	1.11	1.08	- .03	1.13	1.14	+ .01	1.11	1.10	- .01	
교제	1.04	1.02	- .02	1.16	1.22	+ .06	1.34	1.50	+ .16	
휴양	.50	.48	- .02	.52	.49	- .03	.52	.49	- .03	
레저활동	.32	.29	- .03	.37	.37	0	.52	.49	- .03	
신문·잡지·책	.33	.29	- .04	.31	.27	- .04	.29	.27	- .02	
라디오	.56	.36	- .20	.48	.31	- .17	.35	.22	- .13	
T	V	2.01	2.10	+ .09	2.27	2.38	+ .11	3.06	3.53	+ .47

으로 볼 때 평일의 경우 「수면」 7시간 53분, 「식사」 1시간 47분, 「신변잡일」 1시간 2분, 「일」 5시간 6분, 「家事」 2시간, 「이동」 1시간 8분, 「교제」 1시간 2분, 「휴양」 48분, 「레저활동」 29분, 「신문·잡지·책」 29분, 「라디오」 36분, 「TV」 2시간, 10분이며, 曜日別 成人の 80년대 1일 生活時間使用의 變化傾向은 다음과 같다.

준거틀로 작용했을 이와 같은 成人の 생활시간 구조 변동이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하는 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시간구조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 관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III 研究方法

1. 資料蒐集

國民生活時間調查를 개인이 全國的으로 수행하는 데는 연구경비·조사인원의 확보·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때문에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앞의 문헌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국가기관이나 규모가 큰 민간연구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10세이상 전국민 3,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서울대 신문연구

소에 의뢰해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83년, 85년, 87년, 90년 5회에 걸쳐 동일한 조사양식과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소년생활시간구조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81년과 90년도의 「국민 생활시간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5회의 조사자료중 81년과 90년도의 자료만을 비교한 이유는;

1) 5회 조사자료중 81년과 90년도 조사만이 조사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사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계절적 變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兩年度 자료뿐이며(81년 : 9월 18일~20일), 90년 : 10월 26일~28일)

2) 비교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변화경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함에서였다.

2. 分析內容

時間의週期는 일반적으로 日(day)·週(week)·月(month)·年(year)으로 大別되고 있으나, 이종 自然週期인 日(day)과 社會的 時間週期인 週(week)가 現代人の 生活時間使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두가지 時間週期의 意味를 최대한 반영하기위하여 分析對象日을 平日·土曜日·日曜

日로 설정하였으며, 각各日에 있어 국민들이 어떠한 行動을 하루에 몇시간씩 어느 時間帶에 하고 있는지가 「國民생활시간조사」에는 나와 있으나 時間帶分析은 24시간이라는 時系列的 공간에 모든 행동의 행위자율을 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 까지 다를 경우 원고의 지면을 너무 차지하게 돼, 여기서는 1차적으로 시간량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행위에 대한 시간량」의 기준 조사연구는 전체평균시간량의 산출을 통한 分析에 머물러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평균시간·行爲者率·行爲者平均時間으로 細分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 24시간이라는 절대시간속에서의 행위별 역학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들 용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體平均 時間 : 조사대상 전체로서의 평균시간(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평균시간)

行爲者率 : 조사대상자 전체중 24시간동안에 1회(15분)이상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백분율

行爲者平均時間 : 그 행위를 한 사람(行爲者)들만의 평균시간

3. 生活行動의 分類

生活속에서의 諸行動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여 체계화 하느냐 하는 것은 생활시간사용의 구조를 입체적으로組織化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行動을 세분화하는 경우, 특정 행동에 대한 구체적 分析을 할 수 있어 자세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인 포괄성은 약화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次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1日生活時間構造에 대한 변화추세를 총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諸行為을 「수면」·「식사」·「신변집일」·「일」·「학업」·「家事」·「교제」·「휴양」·「여가활동」·「이동」·「신문·잡지·책」·「라디오청취」·「TV시청」등 13個 항목

으로 分類하였으며, 이 분류항목들의 세부적인 行爲內容을 보면 다음의 行爲分類表와 같다.

4. 分析方法

變因들간의 相互諸關係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原資料(raw data)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生活時間使用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현우리나라에 있어 KBS가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뿐이다. 이 자료는 1982년 멕시코의 「世界社會學大會」에서 行爲分類·조사방법·자료집·통계분석 등의 과학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피조사자의 대규모 및 전국적 조사라는 사회조사의 理想性을 간직하고 있다(한국방송공사, 1988).

그러나 이를 분석자료로 삼을 경우 또 다른 통계분석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81년과 90년도간의 증감비교를 통한 생활기간 사용량의 「변화경향」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5. 青少年의 연령구분

청소년기에 대한 연령구분은 논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본논문에서는 國民生活時間調查에서 구분한 10~15세를 前期青少年으로, 16~19세를 後期青少年이라 명명하여 상호비교 분석하였다.

IV 分析結果 및 論議

1. 前期青少年(10~15세)의 生活時間

A. 生活必須行動

1) 全體平均時間

90年 우리나라 前期青少年의 「수면」시간량은 평일 8시간29분, 토요일 8시간46분, 일요일 9시간37분으로 평일보다 토요일에 17분 더 많이 잠을

〈行動分類表〉

대 분류	중 분류	구체적인 예	비고
수면		연속30분 이상의 잠	30분 미만은 휴식으로 처리
식사		아침·점심·저녁·야식	간식은 휴식으로 처리
신변잡일		세수·화장·목욕·미장원·이발·옷갈아 입기·출퇴근 준비	
일		일(준비, 정리), 아르바이트, 부업	
학업	수업 및 학교행사	교내 학습, 운동회, 소풍, 흠품	
	과외활동	방과 후의 구룹활동	
	학교 외의 학습	집에서의 예술·복습, 학원 수업	
가사	취사	부엌일, 식사준비, 설것이	
	청소	먼지털이, 걸레질, 쓸기	
	세탁	세탁, 다리미질, 말리기	"세탁소에 간다"는 가정 잡일로 처리
	재봉·편물	재봉, 짜집기, 손편물	
	실용품 사기	가사용품 또는 사사에 필요한 물건 사기, 심부름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산책으로 취급
	육아·어린이 돌보기	젖주기, 어린이 유치원 보내기, 아이들(국민학교 이하)과의 접촉	
	가정 잡일	가구의 정리, 동사무소 가기, 편지, 가계부, 차물기, 가족들보기(어린이, 육아제외), 은행가기, 본조사 설문지 기입	
	개인적 교제	친족·친구·동료와의 대화, 방문, 술, 데이트	식사로 인한 만남은 식사로 취급
	사회적 교제	의리·의무감으로서의 만남, 화합, 종교활동, 반상회 모임	아이의 학부형회는 과외 활동으로 취급
휴양	쉬기·휴식	가조파의 대화, 간식, 혼자서 술, 혼자서 다방가기	"아이와 유원지에 가는 것"은 산책으로 처리
	병, 정양	입원, 자택요양, 건강 진단	
여가	관람, 구경, 감상	영화, 연극, 전람회, 스포츠, 음악, VTR 등의 감상	
	스포츠	운동을 한다	
	승부놀이	트롬프, 하투, 승마, 게임, 장기, 바둑	
	행락, 산책	산보, 동네를 돌기, 하이킹, 드라이브, 유원지 가기	
	배워두어야 할 일, 취미	꽃꽂이, 붓글씨, 레슨, 정원 가꾸기, 애완동물 들보기	
	기능, 자격공부	자동차 기술, 타이프, 영·불회화, 요리공부(각종 학원, TV, 통신교육 등을 통한)	
	어린이와의 유희	소꿉장난, 줄넘기, 고무줄(어린애들의 놀이)	"부모가 같이 놀다"는 휴식으로 취급
	통근	집과 일터의 출퇴근	
	통학	학교(학원)에의 통학	"과외를 위한 통학"은 그 외의 이동으로 취급
이동	그외의 이동	통근·통학 이외의 이동으로 다른 행동에 우선될 수 있는 것	
	신문	일간지(대학 신문인 경우는 주간·격주간 포함)	
신문지·책	잡지·책	주간지, 월간지, 계간기, 단행본	
	라디오(증파·FM)		"스테레오 테이프"는 감상으로 취급
텔레비전		텔레비전	TV에 의한 공부는 자격공부로 취급

자며,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51분 더 많이 잠을 자고 있다.

한편, 「식사」시간량은 평일 1시간28분, 토요일 1시간22분, 일요일 1시간42분으로 일요일이 가장 많고 토요일이 가장 적으며, 「신변잡일」은 평일 54분, 토요일56분, 일요일 1시간2분으로 평일과 토요일은 거의 비슷하나 일요일은 평일이나 토요일보다 훨씬 많다.

81년과 비교할때 「수면」은 평일(+14분) · 토요일(+21분) · 일요일(+43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식사」시간은 평일은 81년과 같고 토요일(+3분)과 일요일은(+5분)은 81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변잡일」은 「수면」이나 「식사」와는 달리 평일(-10분) · 토요일(-10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은 81년과 같다.

2) 行爲者率

「수면」·「식사」·「신변잡일」은 人間生活에 必須的 行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수행동에 대한 行爲者率은 선택적 행위에 대한 행위자율보다 상대적으로 학문적 정보가치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常生活속에서의 필수 행동이라 할지라도 생활의 불규칙적, 비정형성, 등으로 인한 逸脱性은 어느 사회나 존재해 있고, 특히 현대와 같이 사회가 다양하게 變化된 상태에서는 일탈적 행위의 유발요인이 常存하고 있다.

表 2. 필수행동의 전체평균시간

(단위 : 시간, 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수 면	8.15	8.29	+ .14	8.25	8.46	+ .21	8.54	9.37	+ .43
식 사	1.28	1.28	.00	1.19	1.22	+ .03	1.37	1.42	+ .05
신 변 잡 일	1.04	.54	- .10	1.06	.56	- .10	1.02	1.02	.00

表 3. 行爲自律

(단위 : %)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수 면	100.0	99.9	- 0.1	100.0	99.8	- 0.2	100.0	99.8	- 0.2
식 사	99.6	99.4	- 0.2	99.7	98.9	- 0.8	99.9	99.2	- 0.7
신 변 잡 일	99.6	98.7	- 0.9	99.3	98.2	- 1.1	95.9	92.4	- 3.7

表 4. 필수행동의 행위자평균시간

(단위: 시간, 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수 면	8.15	8.30	+ .15	8.25	8.46	+ .21	8.540	9.38	+ .44
식 사	1.28	1.28	.00	1.19	1.23	+ .04	1.38	1.43	+ .05
신 변 잡 일	1.04	.55	- .09	1.06	.56	- .10	1.04	1.08	+ .04

81년과 비교할 때, 「수면」은 평일(+15분)·토요일(+21분)·일요일(+44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식사」는 평일은 81년과 같고 토요일(+4분)과 일요일(+5분)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변잡일」은 평일(-9분)과 토요일(-10분)은 81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요일은 (+4분)은 증가하였다.

4) 論 議

全體平均時間·行爲者率·行爲者平均時間이라는 3측면에서 80년대 사회변동이 가져온 생활필수행동의 변화내용은;

① 「수면」의 전체평균시간량 증가는 행위자율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사람들의 行爲者平均時間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① 「식사」행위에 있어 80년대를 통하여 변화된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행위자평균시간에 있어서의 증가뿐인데, 평일에 사회변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10~15세의 前期 青少年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어서 학교수업의 생활시간구조가 사회변동의 영향을 차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행위자평균시간량 증가는 식사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先進國型 형태로의 變化를 의미하고 있다.

① 한편, 「신변잡일」은 평일·토요일의 행위자율은 81년과 거의 같으나 일요일의 행위자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행위자평균시간은 평일·토요일은 81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 일요일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 보듯이 前期 青少年들의 「신변잡일」행위에 대한 80년대의 變化는 過中의 신변잡일 시간량은 줄이고 그대신 휴일인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사용패턴을 지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B. 生活選擇行動

1) 全體平均時間

90년 우리나라 前期青少年들의 生活選擇行動에 대한 시간량 順을 보면;

平 日 : 학업(8시간19분)>TV(2시간4분)>이동(1시간4분)>휴양(39분)>여가활동(37분)>교제(24분)>가사(21분)>라디오(19분)>신문·잡지·책(14분)>일(4분)

土曜日 : 학업(5시간53분)>TV(3시간16분)>이동(1시간10분)>여가활동(51분)<교제(50분)>가사(40분)<휴양(38분)>신문·잡지·책(17분)<라디오(16분)>일(6분)

日曜日 : TV(4시간40분)>학업(2시간37분)>교제(1시간22분)>여가활동(1시간5분)>가사(1시간1분)>휴양(40분)>이동(37분)>라디오(23분)<신문·잡지·책(21분)>일(10분)이다.

한편, 요일별로 보면 「가사」·「교제」·「여가활동」·「TV」·「신문·잡지·책」은 평일<토요일<일요일의 시간량순을, 「학업」은 평일>토요일>일요일, 「이동」은 토요일>평일>일요일, 「라디오」는 일요일>평일>토요일, 「휴양」은 평일<토요일<일요일 시간량 순을 나타내고 있다.

81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증가한 행위는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TV시청시간량인데 요일별 증감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증가한 행위>

平 日 : TV(+26분)>교제(+4분)

土曜日 : TV(+35분)>교제(+19분)

日曜日 : TV(+46분) > 교제(+18분) > 학업(+5분) > 라디오(+2분)

〈감소한 行爲〉

平 日 : 家事(-10분) > 일(-8분) > 여가활동(-5분) > 이동(-4분) > 학업 = 신문·잡지·책(-1분)

土曜日 : 학업(-18분) > 가사(-13분) > 일 = 여가활동(-11분) > 이동(-4분) > 신문·잡지·책 = 라디오(-3분) > 휴양(-1분)

日曜日 : 가사(-42분) > 여가활동(-39분) > 휴양(-11분) > 일(-10분) > 이동(-6분) > 신문·잡지·책(-5분)

〈변동이 없는 행위〉

平 日 : 휴양·라디오청취

土曜日 : 없음

日曜日 : 없음

〈論 議〉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80年代 前期青少年들의 선택행동 시간사용구조 변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평일에는 「가사」·「일」·「여가활동」·「이동」시간량이, 토요일에는 「학업」·「가사」·「일」·「여가활동」이, 일요일에는 「가사」·「여가활동」·「휴양」·「일」등이 크게 감소한 대신 평일에는 「TV시청」만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TV시청과」과 「교제」가 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이다.

表 5. 선택행동의 전체평균시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일	.12	.04	-.08	.17	.06	-.11	.20	.10	-.10
학업	8.20	8.19	-.01	6.11	5.53	-.18	2.32	2.37	+.05
가사	.31	.21	-.10	.53	.40	-.13	1.43	1.01	-.42
교제	.20	.24	+.04	.31	.50	+.19	1.04	1.22	+.18
휴양	.39	.39	.00	.39	.38	-.01	.51	.40	-.11
여가활동	.42	.37	-.05	1.02	.51	-.11	1.44	1.05	-.39
이동	1.08	1.04	-.04	1.14	1.10	-.04	.43	.37	-.06
신문·잡지·책	.15	.14	-.01	.20	.17	-.03	.26	.21	-.05
라디오	.19	.19	.00	.19	.16	-.03	.21	.23	+.02
T V	1.38	2.04	+.26	2.41	3.16	+.35	3.54	4.40	+.46

이와같은 변동에서 논의를 요하는 문제상황은;

①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대부분의 諸行爲 時間이 감소하여 「TV시청」이라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증가, 행위별 시간량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과

②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여가활동」은 크게 감소하고 「교제」시간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青少年의 균형적인 인격형성에 필요한 취미생활·스포츠·영화감상·여행 등의 행위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2) 行爲者率

선택행위에 있어 行爲者率이 다른 행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行爲는 「학업」·「이동」·「TV시청」이며 낮은 行爲는 「일」·「라디오청취」·「신문·잡지·책」인데各行爲의 曜日別 行爲者率順을 보면;

平 日 : 학업(99.3%) > 이동(96.7%) > TV(92.4%) > 휴양(63.9%) > 가사(43.9%) > 여가활동(38.9%) > 교제(35.1%) > 신문·잡지·책(28.8%) > 라디오(24.1%) > 일(6.3%)

土曜日 : 학업(98.9%) > 이동(96.8%) > TV(95.8%) > 휴양(59.9%) > 가사(55.4%) > 교제(46.5%) > 여가활동(45.9%) > 신문·잡지·책(27.9%) > 라디오(20.4%) > 일(5.3%)

日曜日 : TV(96.9%) > 학업(83.5%) 휴양(57.9%

(단위: 시간, 분)

表 6. 선택행동의 행위자율

(단위 : %)

	평 일			토曜일			일요일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일	8.2	6.3	-1.9	12.9	5.3	-7.6	14.3	8.1	-6.2	
학업	99.6	99.3	-0.3	98.9	98.9	0	88.9	83.5	-5.4	
가사	60.6	43.9	-16.7	68.5	55.4	-13.1	74.3	56.8	-17.5	
교제	36.4	35.1	-1.3	43.8	46.5	+2.7	50.1	54.7	+4.6	
휴양	67.9	63.9	-4.0	64.7	59.9	-4.8	71.2	57.9	-13.3	
여가활동	50.0	38.8	-11.2	60.0	45.9	-14.1	69.8	50.7	-19.1	
이동	99.5	96.7	-2.8	99.7	96.8	-2.9	57.4	54.4	-3.0	
신문·잡지·책	32.6	28.8	-3.8	36.5	27.9	-8.6	39.0	30.5	-8.5	
라디오	29.8	24.1	-5.7	28.4	20.4	-8.0	24.3	25.2	+0.9	
T	V	90.2	92.4	+2.2	94.4	95.8	+1.4	96.4	96.9	+0.5

%) > 가사(56.8%) > 교제(54.7%) > 학업(54.4%) > 여가활동(50.7%) > 신문·잡지·책(30.5%) > 라디오(25.2%) > 일(8.1%)이다.

한편, 81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증가한 행위는 평일 「TV」, 토요일과 일요일 「교제」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行爲는 평일 「가사」,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가활동」인데各行爲의 요일별 행위자율 증감은 다음과 같다.

〈증가된 행위〉

平日 : TV(+2.2%)

土曜日 : 교제(+2.7%) > TV(+1.4%)

日曜日 : 교제(+4.6%) > 라디오(+0.9%) > TV(+0.5%)

〈감소된 행위〉

平日 : 가사(-16.7%) > 여가활동(-11.2%) > 라디오(-5.7%) > 휴양(-4.0%) > 신문·잡지·책(-3.8%) > 이동(-2.8%) > 일(-1.9%) > 교제(-1.3%) > 학업(-0.3%)

土曜日 : 여가활동(-14.1%) > 가사(-13.1%) > 신문·잡지·책(-8.6%) > 라디오(-8.0%) > 일(-7.6%) > 휴양(-4.8%) > 이동(-2.9%)

日曜일 : 여가활동(-19.1%) > 가사(-17.5%) > 휴양(-13.3%) > 신문·잡지·책

(-8.5%) > 일(-6.2%) > 학업(-5.4%) > 이동(-3.0%)

〈변동되지 않은 행위〉

平日 : 없음.

土曜일 : 학업.

日曜일 : 없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택행동의 行爲者率順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① 前期 青少年層이 대부분 학생이어서 평일과 토요일은 「학업」과 「이동」의 行爲자율이 「TV시청」 行爲자율보다 높으나 日曜일에는 「학업」보다도 「TV시청」 行爲자율이 무려 13.4%나 더 높다는 점과 ② 「여가활동」(평일 38.9%, 토요일 45.9%, 일요일 50.7%)의 行爲자율은 50%이하, 「신문·잡지·책」(평일 27.9%, 토요일 27.9%, 일요일 30.5%)은 이보다 더욱 적어 30%이하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가활동」과 「신문·잡지·책」의 行爲가 前期 青少年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선택행동의 변화경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가사」·「여가활동」·「신문·잡지·책」등의 行爲자율은 감소하고 그대신 「TV」·「교제」의 行爲자율만이 증가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80년대의 사회변동은 前期 青少年의 선택행위에 대한 行爲자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作用했다고는 볼 수 없다.

3) 行爲者平均時間

선택행동중 행위자평균시간이 가장 많은 행동은 평일·토요일은 「학업」이며 일요일은 「TV시청」이고 가장 적은 행동은 평일 「가사」, 토요일 「신문·잡지·책」, 일요일은 「이동」과 「신문·잡지·책」인데各行爲者の 요일별 행위자평균시간량順을 보면;

平 日 : 학업(8시간23분) > 라디오(2시간14분)
 > 여가활동(1시간34분) > 라디오(1시간17분) > 교제(1시간8분) = 이동(1시간7분) > 휴양(1시간1분) > 일(55분) > 신문·잡지·책(50분) = 가사(48분)

土曜日 : 학업(5시간57분) > TV(3시간24분) > 일(1시간58분) > 여가활동(1시간50분) > 교제(1시간46분) > 라디오(1시간20분) > 가사 = 이동(1시간12분) > 휴양(1시간4분) > 신문·잡지·책(59분)

日曜日 : TV(4시간48분) > 학업(3시간7분) > 교제(2시간29분) > 여가활동(2시간8분) > 일(1시간59분) > 가사(1시간47분) > 라디오(1시간31분) > 휴양(1시간9분) > = 이동 = 신문·잡지·책(1시간8분) 이다.

한편, 81년과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행위는 평일 「라디오청취」, 토요일 「교제」, 일요일 「TV시청」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행위는 평일은 「이동」(-1분과)만 약간 감소했고 토요일은 「학업」, 일요일은 「가사」이다. 이하에서各行爲의 행위자평균시간량 증감順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가된 행위〉

平 日 : 라디오(+58분) > 여가활동(+52분) > 교제(+48분) > 일(+43분) > TV(+36분) > = 신문·잡지·책(+35분) > 휴양(+22분) > 가사(+17분) > 학업(+3분)

土曜日 : 교제(+36분) > TV(+33분) > 라디오(+14분) > 여가활동(+6분) > = 신문·잡지·책(+5분) = 휴양(+4분)

日曜日 : TV(+46분) > 교제(+21분) > 학업(+16분) > 라디오(+6분) > 신문·잡지·책(+1분)

〈감소된 행위〉

平 日 : 이동(-1분)

土曜日 : 학업(-18분) > 일(-15분) > 가사(-5분) > 이동(-2분)

日曜日 : 가사(-32분) > 일(-24분) > 여가활동(-21분) > 이동(-7분) > 휴양(-3분)

선택행위의 행위자평균시간량順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TV시청」 행위자평균시간이 다른 행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신문·잡지·책」의 시간량이 극히 적다는 점이며, 요일별 시간량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가사」·「교제」·「휴양」·「여가활동」·「신문·잡지·책」·「라디오」·「TV」는 평일 < 토요일 < 일요일의 시간량순을, 「학업」은,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일」은 일요일 = 토요일 > 평일, 「이동」은 일요일 = 평일 < 토요일의 시간량순을 나타내고 있어 요일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점이다.

한편, 행위자평균시간을 행위자율과 관련지어 살펴 볼 때 나타나는 특징은 전 선택행동중 「TV시청」 행위만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이 전요일에 걸쳐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행동은 요일별 특성에 따라 증감이 달라지고 있는데 요일별各行爲의 증감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平 日 : 행위자율 증가 · 행위자평균시간증가 = 「TV」

행위자율 감소 · 행위자평균시간증가 = 「일」·「학업」·「가사」·「교제」·「휴양」·「여가활동」·「신문·잡지·책」·「라디오」

행위자율 감소 · 행위자평균시간감소 = 「이동」

土曜日 : 행위자율 감소 · 행위자평균시간감소 = 「일」·「가사」·「이동」
 행위자율 증가 · 행위자평균시간증가 = 「교제」·「TV」

表 7. 선택행위의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 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일	.12	.55	+ .43	2.13	1.58	- .15	2.23	1.59	- .24	
학 업	8.20	8.23	+ .03	6.15	5.57	- .18	2.51	3.07	+ .16	
가 사	.31	.48	+ .17	1.17	1.12	- .05	2.19	1.47	- .32	
교 제	.20	1.08	+ .48	1.10	1.46	+ .36	2.08	2.29	+ .21	
휴 양	0.39	1.01	+ .22	1.00	1.04	+ .04	1.12	1.09	- .03	
여 가 활 동	0.42	1.34	+ .52	1.44	1.50	+ .06	2.29	2.08	- .21	
이 동	1.08	1.07	- .01	1.14	1.12	- .02	1.15	1.08	- .07	
신문 · 잡지 · 책	0.15	.50	+ .35	.54	.59	+ .05	1.07	1.08	+ .01	
라 디 오	.19	1.17	+ .58	1.06	1.20	+ .14	1.25	1.31	+ .06	
T	V	1.38	2.14	+ .36	2.51	3.24	+ .33	4.02	4.48	+ .46

행위자율 감소 · 행위자평균시간증가
=「휴양」·「여가활동」·「신문 · 잡지 · 책」·「라디오」

행위자율 不變 · 행위자평균시간감소
=「학업」

日曜日 : 행위자율 감소 · 행위자평균시간감소
=「일」·「가사」·「휴양」·「여가활동」·「이동」·「교제」

행위자율 증가 · 행위자평균시간증가
=「교제」·「라디오」·「TV」

행위자율 감소 · 행위자평균시간증가
=「학업」·「신문 · 잡지 · 책」·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사이의 관계에서 볼때 80年代 前期 青少年의 生活時間구조에서 선택행동의 변화성향은, 평일은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한 「TV시청」행위만 제외하고는 전행동이 행위자율은 감소했으나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시간은 전행동이 81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이동」을 제외), 토요일은 행위자율에 있어서는 「교제」와 「TV시청」만 증가하고 전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행위자평균시간은 노동의 성격을 지닌 「일」·「학업」·「가사」는 크게 감소하고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증가하였다.

또한, 일요일은 「교제」 및 전파매체인 「라디오」와 「TV」의 행위자율은 증가하고 나머지 행동의

행위자율은 감소했으나 행위자평균시간은 「교제」·「라디오청취」「TV시청」·「학업」이 증가하여 80年代 社會變動은 각 행동에 있어서 行為者率과 행위자평균시간에 각기 다르게 작용하였음을 알수 있다.

2. 後期 青少年(16~19세)의 生活時間

A. 生活必須行動

1) 全體平均時間

90년대 우리나라 後期 青少年의 「수면」시간량은 평일 7시간8분, 토요일 7시간28분, 일요일 8시간45분으로 81년보다 평일(+17분) · 토요일(+37분) · 일요일(+54분) 모두 前期 青少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평일<토요일<일요일의 증가폭順을 나타내고 있다.

「식사」는 평일 1시간29분, 토요일 1시간21분, 일요일 1시간40분으로 평일<토요일<일요일의 시간량順을 보이고 있으며, 평일(+6분) · 토요일(+5분) · 일요일(+8분) 모두 81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식사」시간의 증가폭은 「수면」과 마찬가지로 前期 青少年보다 더 크다.

한편, 「신변집일」은 평일 52분, 토요일 56분, 일요일 1시간4분으로 평일<토요일<일요일의順을 보이고 있는데 평일(-15분)과 토요일(-13분)은 81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요일(-2분)은 약간 감소하였다.

2) 行爲者率

「수면」·「식사」·「신변잡일」 모두 生活必須行動에서 行爲者率은 「신변잡일」의 日曜日(93.7%) 만 제외하고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81년과 비교할 때 「신변잡일」의 토요일(+0.1%)만 제외하고는 전행위 모두 약간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 폭은 前期 青少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신변잡일」의 日曜日 감소폭(-2.7%)이 가장 크다.

3) 行爲者平均時間

「수면」의 行爲者平均時間은 평일 7시간10분, 토요일 7시간29분, 일요일 8시간48분이며 「식사」는 평일 1시간31분, 토요일 1시간23분, 일요일 1시간41분으로 「수면」과 「식사」는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81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前期 青少年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한편, 「신변잡일」의 행위자평균시간은 평일 52분, 토요일 57분, 일요일 1시간8분으로 평일(-15분과) 토요일(-+4분)은 81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은 81년과 같다.

「신변잡일」의 감소폭도 前期 青少年보다 더 큰 것이 특징이다.

4) 論 議

生活必須行動에 있어서 80년대 사회변동은;

① 「수면」과 「식사」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율은 극히 적으나마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감소시킨 데 반하여 행위자평균시간은 큰 증가를 가져왔으며

② 「신변잡일」은 평일과 일요일의 행위자율, 특히 일요일의 행위자율을 크게 감소시킨 데 반해 토요일의 행위자율은 반대로 극히 적긴 하지만 증가시켰으며, 행위자평균시간은 평일·토요일은 크게 감소시키고 일요일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③ 이상을 요약해 볼 때 後期 青少年에 있어서의 必須行動에 대한 變化는 前期 青少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행위자평균시간량에서만 발생했으며, 80年代 社會變動은 「수면」과 「식사」에는 전요일에 걸쳐 행위자평균시간에만, 「신변잡일」은 행위자율의 경우 일요일, 행위자평균시간은 평일

表 8. 생활필수행동의 전체평균시간량

(단위: 시간,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수 면	6.51	7.08	+ .17	6.51	7.28	+ .37	7.51	8.45	+ .54
식 사	1.23	1.29	+ .06	1.16	1.21	+ .05	1.32	1.40	+ .08
신 변 잡 일	1.07	.52	- .15	1.09	.56	- .13	1.06	1.04	- .02

表 9. 생활필수행동의 행위자율

(단위: %)

	평 일			토요일			일요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수 면	100.0	99.5	- 0.5	100.0	99.7	- 0.3	100.0	99.5	- 0.5
식 사	99.3	98.9	- 0.4	99.6	98.4	- 0.8	99.3	99.2	- 0.1
신 변 잡 일	99.8	99.2	- 0.6	98.0	98.1	+ 0.1	96.4	93.7	- 2.7

表 10. 생활필수행동의 행위자평균시간

(단위: 시간,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수 면	6.51	7.10	+ .19	6.51	7.29	+ .38	7.51	8.48	+ .57
식 사	1.24	1.31	+ .07	1.17	1.23	+ .06	1.33	1.41	+ .08
신 변 잡 일	1.07	.52	- .15	1.11	.57	- .14	1.08	1.08	.00

과 토요일에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④또한, 80년대 사회변동은 행위자평균시간에 있어 全曜日 모두 前期 青少年보다 後期 青少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B. 生活選擇行動

1) 全體平均時間

後期 青少年의 生活選擇行動中 全體平均時間量이 가장 많은 行動은 평일·토요일·일요일 「학업」, 일요일 「TV」이며 가장 적은 行動은 평일 「가사」,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문·잡지·책」인데 요일별 각 行為의 時間量順은;

平 日 : 학업(9시간25분) > 이동(1시간22분) > TV(1시간16분) > 일(50분) > 라디오(35분) ≈ 휴양(34분) > 여가활동(31분) > 교제(23분) > 신문·잡지·책(17분) > 가사(14분) >

土曜日 : 학업(6시간35분) > TV(2시간36분) > 일(49분) > 라디오(44분) > 여가활동(42분) > 휴양(38분) > 가사(32분) > 신문·잡지·책(23분)

日曜日 : TV(3시간34분) > 학업(3시간32분) > 교제(1시간26분) > 여가활동(59분) > 이동(56분) ≈ 가사(55분) > 라디오(47분) > 휴양(37분) > 신문·잡지·책(33분) > 일(31분) 이다.

한편, 曜日別 時間量順을 보면, 「가사」·「교제」·「여가활동」·「신문·잡지·책」·「라디오」·「TV」는 평일 < 토요일 < 일요일의 패턴을, 「학업」은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일」은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휴양」은 토요일 ≈ 일요일 > 평일, 「이동」은 토요일 > 평일 > 일요일의 시간량順을 보이고 있다.

81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증가한 行위는 평일 「학업」(+45분), 토요일(+37분)과 일요일(+38분)은 「TV시청」인데 각 行위의 요일별 증감順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증가된 行위〉

平 日 : 학업(+45분) > TV(+12분)

土曜日 : TV(+37분)

日曜日 : TV(+38분)

〈감소된 行위〉

平 日 : 일(-23분) > 가사(-14분) > 이동 = 신문·잡지·책(-8분) ≈ 교제 = 라디오(-7분) ≈ 휴양(-6분) > 여가활동(-3분)

土曜日 : 가사(-20분) > 일(-18분) > 교제 = 여가활동 = 신문·잡지·책(-8분) > 이동(-6분) > 학업(-3분) ≈ 라디오(-2분) ≈ 휴양(-1분)

日曜日 : 가사(-42분) > 학업 = 여가활동(-14분) > 일 = 교제(-11분) > 이동(-8분) > 휴양(-6분) > 신문·잡지·책 = 라디오(-1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년에 비해 평일은 「학업」과 「TV」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TV」만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 다른 선택행동의 전체평균시간은 전요일 모두 감소하였다.

80년대의 後期 青少年 선택행위에 대한 시간사용구조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일요일의 「학업」과 「TV」시청시간량 관계로서, 81년에는 「학업」(3시간46분)이 「TV시청시간」(2시간56분) 보다 50분 더 많았으나 90년에는 반대로 「TV시청시간」(3시간34분)이 「학업시간량」(3시간32분) 보다 2분 더 많아진 점이다.

또한, 「일」·「가사」·「교제」·「이동」은 전요일에 걸쳐 크게 감소한 반면, 「여가활동」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신문·잡지·책」은 평일과 토요일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평일은 「학업」과 「TV」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TV」시청시간 증가로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80년대 사회변동과정에서의 後期 青少年生活時間構造는 비정상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문제의 脈을 형성하는 또 다른 측면은 사고력 향상과 교양을 제공하는 「신문·잡지·책」의 시간량이 전요일에 걸쳐 다른 行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8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을 들 수 있으며, 前期青少年은

「교제」가 81년보다 전요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後期 青少年은 전요일 모두 81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다.

2) 行爲者率

行爲者率은 행위별·요일별 특성에 따라 행위자율이 각기 다른데, 행위자율이 가장 높은 행위는 평일과 토요일 「이동」, 일요일 「TV」시청이며 가장 낮은 행위는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일」이다. 각 行爲의 요일별 行爲者率 順을 보면:

平 日 : 이동(96.2%)>학업(90.8%)>TV(75.1%)>휴양(55.3%)>라디오(38.2%)

>여가활동(32.5%)>교제(30.4%)>가사(29.8%)>신문·잡지·책(26.0%)>일(16.3%)

土曜日 : 이동(94.6%)>TV(90.2%)>학업(88.3%)>휴양(60.2%)>가사(45.0%)>교제(41.5%)>라디오(39.3%)>여가활동(38.2%)>신문·잡지·책(32.8%)>일(16.5%)

日曜日 : TV(94.3%)>학업(73.6%)>이동(66.8%)>교제(53.4%)>휴양(52.9%)>가사(49.6%)>여가활동(43.1%)>라디오(40.6%)>신문·잡지·책(33.8%)>일(12.5%)이다.

한편, 요일별 行爲者率 順을 보면, 「가사」·「교제」·「여가활동」·「TV」는 평일<토요일<일요일의 행위자율 順을, 「일」·「학업」·「이동」은 평일

≠토요일>일요일, 「휴양」은 토요일>평일>일요일, 「신문·잡지·책」은 평일<토요일≠일요일, 「라디오」는 평일≠토요일≠일요일의 행위자율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81년과 비교할 때 「학업」과 「TV」를 제외하고는 전행위의 행위자율이 전요일에 걸쳐 감소하였는데 각 행위의 요일별 증감順은 다음과 같다.

〈증가된 행위〉

平 日 : 학업(+3.5%)

土曜日 : 학업(+1.9%)>TV(+1.1%)

日曜日 : TV(+1.4%)

〈감소된 행위〉

平 日 : 가사(-24.4%)>신문·잡지·책(-22.7%)>교제(-13.8%)>휴양(-11.8%)≠여가활동(-11.7%)>라디오(-7.8%)>일(-2.6%)≠TV(-2.0%)>이동(-1.1%)

土曜日 : 교제(-18.9%)≠신문·잡지·책(-18.8%)>가사(-16.6%)>여가활동(-12.5%)>휴양(-6.7%)>일(-4.2%)>이동(-2.1%)>라디오(-0.7%)

日曜日 : 여가활동(-18.5%)>가사(-17.7%)>휴양(-15.5%)>교제(-10.8%)>신문·잡지·책(-9.9%)>학업(-6.6%)>라디오(-4.3%)≠일(-4.2%)>이동(-1.2%)

(단위 : 시간,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일	1.13	.50	- .23	1.07	.49	- .18	.42	.31	- .11
학업	8.40	9.25	+ .45	6.38	6.35	- .03	3.46	3.32	- .14
가사	.28	.14	- .14	.52	.32	- .20	1.37	.55	- .42
교제	.30	.23	- .07	1.01	.53	- .08	1.37	1.26	- .11
휴양	.40	.34	- .06	.37	.38	- .01	.43	.37	- .06
여가활동	.34	.31	- .03	.50	.42	- .08	1.13	.59	- .14
이동	1.30	1.22	- .08	1.40	1.34	- .06	.58	.56	- .08
신문·잡지·책	.25	.17	- .08	.31	.23	- .08	.34	.33	- .01
라디오	.42	.35	- .07	.46	.44	- .02	.48	.47	- .01
T V	1.04	1.16	+ .12	1.59	2.36	+ .37	2.56	3.34	+ .38

이상의 行爲者率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현상은 평일과 토요일의 「학업」행위자율이 증가한 반면 일요일의 행위자율이 81년 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토요일과 일요일의 행위자율은 증가했으나, 평일의 행위자율이 감소한 「TV시청」행위이며, 그외 대부분의 행위자율이 전요일에 걸쳐 감소한 점이다.

특히, 「가사」·「교제」·「휴양」·「여가활동」·「신문·잡지·책」의 행위자율이 전요일에 걸쳐 81년보다 크게 감소한 점이 문제의 상황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가사」와 「신문·잡지·책」은 평일·토요일에서 「교제」와 「휴양」은 전요일 모두 前期 青少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80년대 社會變動은 前期 青少年의 行爲者率보다 後期 青少年의 선택행동에 대한 行爲者率에 더 큰 變化를 초래하였다.

3) 行爲者平均時間

後期 青少年의 生活選擇行動中에서 행동자평균 시간이 가장 많은 行動은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학업」이며, 가장 적은 행동은 평일 「가사」,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양」인데 각 行爲의 요일별 行爲者平均時間量 順을 살펴 보면;

平 日 : 학업(10시간22분) > 일(5시간8분) > TV(1시간41분) > 여가활동(1시간35분) > 라디오(1시간33분) > 이동(1시간25분) > 교제(1시간14분) > 신문·잡지

表 12. 선택행동의 행위자율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단위 : %)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81년	90년	증 감	
일	18.9	16.3	-2.6	20.7	16.5	-4.2	16.7	12.5	-4.2	
학업	87.3	90.8	+3.5	86.4	88.3	+1.9	80.2	78.6	-6.6	
가사	54.2	29.8	-24.4	61.6	45.0	-16.6	67.3	49.6	-17.7	
교제	44.2	30.4	-13.8	60.4	41.5	-18.9	64.2	53.4	-10.8	
휴양	67.1	55.3	-11.8	66.9	60.2	-6.7	68.4	52.9	-15.5	
여가활동	44.2	32.5	-11.7	50.7	38.2	-12.5	61.6	43.1	-18.5	
이동	97.3	96.2	-1.1	96.7	94.6	-2.1	68.0	66.8	-1.2	
신문·잡지·책	48.7	26.0	-22.7	51.6	32.8	-18.8	47.3	33.8	-9.9	
라디오	46.0	38.2	-7.8	40.0	39.3	-0.7	44.9	40.6	-4.3	
T V	77.1	75.1	-2.0	89.1	90.2	+1.1	92.9	94.3	+1.4	

表 13. 선택행동의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81년	90년	증감	
일	6.28	5.08	-1.20	5.23	4.58	-.25	4.12	4.03	-.09	
학업	9.55	10.22	+.27	7.40	7.27	-.13	4.41	4.48	-.07	
가사	.52	.49	-.03	1.24	1.11	-.13	2.24	1.50	-.34	
교제	1.08	1.14	-.06	1.41	2.07	+.26	2.31	2.41	+.10	
휴양	.59	1.02	-.03	.56	1.02	+.06	1.03	1.09	+.06	
여가활동	1.16	1.35	+.19	1.40	1.50	+.10	1.58	2.18	+.20	
이동	1.32	1.25	-.07	1.43	1.39	-.04	1.26	1.24	-.02	
신문·잡지·책	.52	1.05	+.13	.59	1.11	+.12	1.10	1.38	+.28	
라디오	1.31	1.33	+.02	1.39	1.53	+.14	1.46	1.55	+.09	
T	V	1.22	1.41	+.19	2.13	2.53	+.40	3.09	3.47	+.38

분) > 여가활동(+20분) > 교제(+10분) < 라디오(+9분) > 휴양(+6분)

<감소한 행위>

平日 : 일(-1시간20분) > 이동(-7분) > 가사(-3분)

土曜日 : 일(-25분) > 학업=가사(-13분) > 이동(-4분)

日曜日 : 가사(-34분) > 일(-9분) > 학업(-7분) > 이동(-2분)

「일」·「가사」·「이동」은 전요일에 걸쳐 행위자 평균시간이 81년보다 감소한데 반하여 「교제」·「휴양」·「여가활동」·「신문·잡지·책」·「라디오」·「TV」는 전요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관련지어 살펴 볼 때 나타나는 특징은, 「교제」·「휴양」·「여가활동」·「신문·잡지·책」·「라디오청취」의 행위자율은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감소했으나 행위자평균시간은 전요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일」·「가사」·「이동」은 행위자율 및 행위자평균시간이 평일·토요일·일요일 모두 81년보다 감소한 점이다.

따라서, 80년대 사회변동은 후기青少年의 선택행동에 있어 「학업」과 「TV」를 제외한 대부분 행동의 행위자율은 감소시키고 행위자평균시간은 증가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갖는 의미는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시키고 그 대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시간을 증가시킨 것이어서 바람직한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前期青少年과 後期青少年의 선택행동에 대한 행위자평균시간을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차이는 前期青少年의 경우 「휴양」·「여가활동」은 평일과 토요일은 증가하고 일요일은 감소했으나 後期青少年은 평·토·일요일 모두 증가했으며, 「수업」시간량이 前期青少年은 토요일만 감소한데 반해 後期青少年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감소했으며 「가사」의 경우 前期青少年은 평일은 크게 감소하고 토·일요일은 감소한 데 반하여 後期青少年은 평·토·일요일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구조는 어찌 하며,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하는 점은 청소년의 문제를 종제적이며 심충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경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까지 청소년에 대한 生活時間 調査研究는 각각의 행위를 분리해 연구해 왔거나 단순히 특정 행위를 얼마나 했는가하는 전체평균시간량의 산출에 의거, 자료를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1일 24시간이라는 절대적 시간주기와週(week)라는 사회적 시간주기에 의해 생활상이 제

약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일을 평일·토요일·일요일로 했으며, 그 시간량산출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시간은 물론 행위자율 및 행위자평균시간을 산출, 24시간 생활시간사용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으며, 81년과 90년을 비교하여 80년대 사회변동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구조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生活必須行動의 경우 사회변동은 행위자율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행위자 평균시간에만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前期·後期 青少年 모두 「수면」·「식사」·「신변잡일」중 적은 양이긴 하지만 80년대를 통해 행위자율이 변화한 것은 「신변잡일」뿐이며, 그것도 일요일에 한해서 81년보다 90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행위자평균시간은 크게 변화하여 前期青少年이나 後期青少年 모두 「수면」과 「식사」의 행위자평균시간은 크게 증가하고 「신변잡일」은 반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2) 행위자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에 사회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生活必須행동보다 선택행동인데, 80년대 우리나라 사회변동은 前期青少年 생활시간구조보다 後期青少年 생활시간 구조에 더 크게 영향력이 작용하였다.

〈前期青少年(10세~15세)〉

평일은,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한 「TV시청」만 제외하고는 모든 선택행동이 행위자율은 감소하고 행위자평균시간은 크게 증가했으며(「이동」만 제외),

토요일은, 행위자율에 있어서는 「교제」와 「TV시청」만 증가하고 전행위가 감소한 반면 행위자 평균시간은 노동의 성격을 지닌 「일」·「학업」·「가사」만 크게 감소하고 여가활동의 성격을 지닌 다른 행위는 크게 증가하였다.

〈後期青少年(16세~19세)〉

「교제」·「휴양」·「여가활동」·「신문·잡지·책」·「라디오」는 전요일 모두 행위자율은 감소하고 행위자평균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일」·「가사」·「이동」은 행위자율 및 행위자평균시간 모두 全曜日에 걸쳐 감소하였다.

이상을 요약해 볼 때 81년에서 90년사이 10년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구조는 균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구조로 변모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같은 동양권인 韓日間比較研究를 통해 青少年의 生活時間使用의 類型을 살피며, 특히 증가일로에 있는 「TV시청」시간을 감안해 TV의 教育的 活用對策에 대한 심층적 研究가 시급하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 1) 尚貞基(1979). 生活시간구조에 대한 연구. 부산교대논문집. 15(1).
- 2) 安玲姬(1977).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논문집. 16(1).
- 3) 金圭煥(1973).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 서울대 출판부.
- 4) 金敬淑(1981). 청소년의 사회화와 TV시청 경향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印永姬(1982). 중학교학생의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李南福 편저(1990). 사회학적 사고. 학민사.
- 7) 安秉俊(1980). 근대국가의 제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4. 한국정치학회.
- 8) 한국은행(1983). 경제통계연보.
- 9) 李貞德(1985). 아동 및 청소년의 1일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동대논문집. 23
- 1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chool sciences (1979). 16. Macmillan Company and Free Press.
- 11) F. Gerald Klein(1980). Time in Communication Research.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1. Sage Pub.
- 12) W.E. Moore(1963).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